

## 제 6 강 언어와 인간

### ◆ 3교시 현대의 언어 철학

#### ▲ 분석철학의 진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학제적인 구분, 그것이 아니면 학문적인 구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더 좁은 차원에서도, 아니면 더 근본적인, 원초적인 차원에서도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역사화된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얘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철학이라는 것과 언어학이라는 것 사이에서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인데,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언어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도,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번에 다시 우리가 그노시스 차원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언어 본래, 언어학의 대상이 되는 내용. 객체1과 객체2의 관계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표와 의미의 관계, 혹은 소리와 관념의 관계에서, 항상 관념 중심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철학에서도 관념을 중요시하고 관념을 다루는 것이지 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철학에서도 언어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관념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지, 소리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소리의 분석과 관념의 분석, 다시 말하면 소리의 이미지와 관념의 이미지, 한마디로 말해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그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루는, 그래서 언어학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철학에서도 언어를 다뤄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어를 다루는 문제는 과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언어연구는 있어 왔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 균형을 맞추는 언어의 두 측면을 다 같이 보는 언어의 연구, 그게 바로 언어학의 탄생이란 거죠. 언어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반면에 이제 철학 쪽에서 다뤘던 언어의 문제는 항상 관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20세기를 거쳐 오면서 가장 큰 사조 두 개를 꼽는다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석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철학에 대한,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

처럼 에피스테몰로지죠, 이게. 기존 철학에 대한 반발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것이었는데, 두 가지 관점이 다 언어학적으로 나름대로의 큰 기여는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항상 관념 중심의 그런 언어 연구였던 것이고, 어떤, 언어의 메커니즘으로서의, 다시 말하면 소리의 분석, 시니피앙과 관념의 분석, 시니피에 사이의 관계, 그런 연구는 없었던 거죠. 그런 연구는 전무했었어요. 그게 바로 언어학이라는 분야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서 관념 쪽에서의 연구를 보자면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분석철학의 경우도 우리가 분석철학이라고 하면 위낙에 이제 광범위한 철학의 한 사조죠.

주로 영미권에서 많이 발전이 되어온 사조인데, 물론 거기서 출발은 유럽 대륙에서 출발은 된 거죠. 보통 출발을 뭐, 프레게라고 하는 독일어권의 철학자로 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프레게라고 하는 사람의 발견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러셀이라던가, 버트란트 러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프레게도 당대에서는 가장 난해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철학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지나간 철학자들 사이에서 묻힌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후에, 고서적, 헌책방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항상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프레게도 역시 러셀이란 사람이, 프레게의 책을 읽고 나서 굉장한 큰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나밖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편지를 쓸 정도로, 내가 봐도 대단한데 왜 무명으로 남았을까 이런,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프레게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거죠.

### ▲ 분석철학 - 집합론

우리가 이제 분석철학에서 가장 큰 대가로 비트겐슈타인을 꼽기도 하는 게, 그 출발점은 아까 얘기했던 프레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논리체계의, 수학에서의 명제라고 하는 것, 집합 개념이 있고 그 집합 안에서의 원소가 있고,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이 부여될 수 있는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라고 있으면,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집합에 원소가 들어 있다는 얘기가, 그 원소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공통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원소가 여러 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소가 하나인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을 때, '원소가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 공통점만 뽑아서 특징을 딱 잡아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해서 x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는 거. 이 엑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엑스만 있는 게 아니죠. 엑스가 하나의 원소로 있는 게 아니라 원소들의 대표성을 뽑아가지고 원소의 추상성을 심어주는 거죠. 여기서 엑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객체들, 주체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게 이것을 언어로 놓고 그대로 보자면, 저 안에 있는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체들이, 그러니까 주어들이예요. 주어에다가, 특정 엑스라고 하는 공통된 개념이 부여되면 그게 엑스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주체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다른 뭔가와 공통되는 개념이 주어져 가지고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죠.

'엑스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여러 개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 다른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어떤 특징을 주어에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 그 안에 이제 내가 들어있으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논리적인 추상적인 논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양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였잖아요. 산술이라고 하는 것이 퀄리티가 아닌 퀀티티의 학문이었던 거죠. 이제 수를 센다는 것이, 아리스메틱이라는 것이 그 학문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집합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크게 보자면 그거예요. 분석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을 열어준, 다시 말하면 일반 언어에다가도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게 처음의 분석철학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레게의 이름을 댈 것 같으면, 그런 시작이었던 거죠.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일반 언어로 그대로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일반 언어에도 있는 것을, 이런 추상적인, 규칙만 쫓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수학이었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를, 그렇게 해놓고도 몰랐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다시 언어에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 걸 발견한 것이, 발명이 아니죠, 발견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분석철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의 세계에 대

한 얘기죠, 물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런 게 다, 언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관념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더 유독 깊은, 관심을 가진다던가 민감하다던가 하면 언어가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엑스를 뽑아야 하는 집합 같은 거, 이게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왜 저게 민감하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엑스라는 것이 이 안에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을 천명하는, 뭐가 어떤 설명이 되었던 것이 엑스의 집합, 몇 개의 엑스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안에 뭐를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무한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일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거를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등한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영어 알파벳에서 ‘이보다 앞에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곧 에이가, 엑스잖아요 비가 곧 엑스고 시도 곧 엑스고 디가 곧 엑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나 비나 씨다 디나 엑스라는 공통점 안에서는 똑같이 동일한 거죠.

그런데 전적으로 동일하다면 집합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다른 점이 있으니까 저런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서양에서 말하는, 엑스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예요. 서양에서 정관사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개념을 통해가지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것들이 그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묶어질 수 있는 그게 정관사예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진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 book’ 이렇게 얘기하면 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집합을 우리가 바꾸면 그냥 ‘책’, 아무 문맥 없이 그냥 ‘책’하면 그냥 전체가 다 되는 건데 이걸 좀 좁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 책 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이라면 그것도 역시 집합이란 말이에요. 거기선 집합을 바꿨어요. ‘너 책 좋아하니?’의 ‘책’하고 ‘책 펴세요.’의 책하고 집합이 달라요.

‘너 책 좋아하니?’라고 물었을 때의 책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인쇄가 된, 종이들을 묶어서 만들어낸,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가장 일반적인 책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책 펴세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어떤 책을 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책의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를 아니까. 한마디로 더 좁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엑스는 일보다 큰 자연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죠. 무한대죠, 이렇게 말하면 가장 앞의 일반적인 책하고 똑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원소가 확 줄어들었죠. 세 개밖에 없죠.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엑스라고 써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면, 이건 뭐 중학교 수학교죠.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나요, 이거? 중학교 한 1학년 때 배우나요, 이 학년 때 배우나요? 중1때 배우나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교죠.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엑스를 쓰지만. 계속 집합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굳이 이것을 우리가 위에 것을 엑스라 그러고 밑에 걸 와이라 그러고, 밑에 걸 제트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책이라고 말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엑스 그러면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집합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요. 전부 그냥 엑스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책이에요, 그냥. ‘책 좋아하니?’ 그러면 맨 위에 걸 얘기하는 거고.

‘너 어제 책 샀다며, 책 좀 보여줘’ 그러면 책은 한 세 권 정도, ‘자, 책 펴세요.’ 그러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집합은 계속 바뀌어도 계속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죠. 그랬을 때 책 그러면 전부 정관사인거죠.

반면에 오늘 오후에 나 책 하나 사려고, 가서 책 좀 사려고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면 거기서 책에다가 정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책이라는 무한대의 집합 안에서 몇 개를 고른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건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정관사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엑스 이게 정관사예요, 이걸 쓰던 이걸 쓰던 어쨌든 정관사예요. 여기 있는 3, 4 이거는 부정관사들이예요. 여기서는 부정관사는 못쓰죠. 왜 못쓰죠?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집합의 원소라 그랬잖아요. 원소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a(\text{어})$ ,  $a(\text{어})$ 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밖에 없는데 하나라는 말은 못해요. 우리가 단순한 의미라는 건 복수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개념이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라는 말은 안 쓰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가지고 ‘우리 한 어머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라고 얘기해요. 단수라는 개념은 복수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개념이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런 걸 안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정관사 부정관사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배우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예요. 일단 개념은

이거예요.

중1 수준의 집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관사 부정관사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2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다면 거기다가 부정관사를 못 써요. 정관사밖에 안 되는 거죠. 유일한 하나 있을 때 정관사 쓴다, 유일한 하나있어서 정관사 쓰는 게 아니예요. 집합이라서 쓰는 건데, 단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는 필연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정관사 밖에 못 쓴다는 그런 개념이죠.

설명 자체가, 언어에서도 이런 논리를 전혀 무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어 문법 따로 놓고 논리 따로 놓고 전부 그래 온 거예요. 중1수준의 수학기초개념이라면 얼마든지 관사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데.

### ▲ 분석철학 - Sinn과 Bedeutung

어쨌든, 이런 것은 하나의 예이고, 이런 것처럼 집합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연 언어에다가 다시 끌어들어서, 그게 이제 처음 분석철학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프레게가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독일어로 진(Sinn), 이라는 것과 부데이통(Bedeutung)이라는 것 사이의 대립. 그것도 역시 또한. 이 사이에서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 둘 다 의미는 의미인데, 진이라고 하는 것과 부데이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최근 언어학 이론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진과 부데이통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인해가지고 그 과거의 철학에서든지 쓸데없는 논쟁을 해왔던, 뭐라고 할까요.

실재론과 유명론 사이에서, 이게 말이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거냐, 말로 관념으로 정해진 거냐, 이런 그런 것의 대립. 이것을 프레게는 이런 데, 진과 부데이통을 혼동해가지고 온 그런 잘못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이런 거, 셋별이나 금성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침에 보는 별하고 밤에 보는 별하고, 서로 개념은,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그런 건데, 말하는 대상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말로 만들어진 결과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부데이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뭘 지칭하느냐, 지시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보통 부데이통과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어떤 대상을 보면 말이지, 실제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내 망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나한테 들어오는 이미지, 이게 진이라

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왔죠. 이게 진이에요. 반면에 저 뒤에 있는 저게 부데이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진과 부데이통이 같은 걸까요. 망원경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을 걸요. 망원경에 색깔 넣으면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이미지를 왜곡하는 렌즈를 끼면 달리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게 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는 거지 만약에 사람의 렌즈가 어안렌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렌즈를 바꿔 끼면 우리 눈이 다르다면 완전히 달리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보이거나 보이는 게 안보이거나, 혹은 색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동물들이 색맹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색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한테 보여지는 감각 차원, 지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차원에서도 언어의 틀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인식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데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이지만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열 몇 가지의 눈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똑같이 보이는 건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보이지 않겠죠. 인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부르파뉴 지방이 있죠. 프랑스에 있는 부르파뉴 지방에서는 옛날 켈트어의 일종의 언어를 20세기 초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나라 말에는, 색깔을 지칭하는 형용사 중에서 회색을 지칭하는 말과 파란색을 지칭하는 말이 똑같아요. 한 단어로 이게 회색도 되고 파란색도 된대요. 이게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맑은 거예요, 흐린 거예요? 참 애매한 경우가 있죠. 우리로선 좀 웃기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파란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푸른색이라는 거 무슨 색예요. 우리 초록색도 푸른색이고 파란색도 푸른색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큰일 날 소리죠. 전혀 다른 소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색 아니냐고 하면 깜짝 놀라죠. 이게 어떻게 똑같은 색이냐고. 우리한테는 같은 계열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그게 이제 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실제 지시물 그게 부데이통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설명을 해야 되는 지각 세계 있잖아요. 지각세계. 그 지각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

시물인거죠. 물론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인식 불가능한 세계도 있겠죠. 칸트가 말했던 물자체,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 단계 다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각세계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어떤 지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관념화시켰을 때 그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이 예를 드렸던가요, 정말 시험에 합격하고서 평생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고, 바다로 딱 가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걸 나보고 편지로 써봐라,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문학적 실력이 뛰어나도 글을 몇 줄로 그렇게 써가지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직감은 하는데, 이거는 뭐 관념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의 세계하고 지각의 세계하고 분명히 달라요. 관념의 세계라는 것은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낼 수 있다면, 그런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석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거를 세세한, 모든 미세한 걸 다 표현할 순 없어요. 색깔도 그렇잖아요. 색깔은 몇 가지 단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색깔 사이의 구별은 되지만, 색깔 사이에 있는 무수한 묘한 색깔들, 이거는 안 돼요.

후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후각이 있어요. 향수 전문가들은 몇 십 가지 후각을 다 꿰고 있는지. 그걸 언어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 냄새라고 하면 무슨 냄새 무슨 냄새, 후각에 관련된 단어는 유난히 적어요.

색깔은 빨강색 푸른색 흰색 검은색 막 있지만, 냄새는 형용사 뭐가 있냐면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사물을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 장미냄새, 밥냄새, 고기냄새 그렇게 애길 하지 그걸 지칭하는 형용사가 있나요.

글쎄, 그냥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달콤한 냄새, 그건 또 맛이죠. 불가능해요. 언어라는 것은 분명히 분절을 할 수 있는, 분석적이 된다는 거죠. 관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걸 다 설명을 못하는 거죠. 분명히 두 개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진과 부데이통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좀 전에까지 얘기했던 그런 차원에서의, 변증법적 단계에서의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전의 단계와 분석 후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 더 전으로 올라가면 물자체까지도 갈 수 있지만, 물자체와 감각의 세계가 다른 것, 감각의 세계와 지각의 세계가 다른 것, 지각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가 다른 것, 이런 게 다 진과 부데이통의 차이의 연장선, 여기서 진과 부데이통 두 개밖에 없죠.



그렇지만 분명 인식의 차원에서는, 물자체와, 감각과, 지각과, 관념과 이런 차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그런 발견,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죠.

철학에서 관념론 실재론가지고 투닥투닥하는 거, 그거는 참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조금만 언어학 공부를 하면 그런 건 아주 무의미한 논쟁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다룬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고.

제가 분석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다시 말하면, 언어를 다룬다고 했지만 언어의 두 측면에서, 시니피앙, 지표, 객체1, 혹은 소리, 이런 쪽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항상 늘 그래왔던 것처럼, 결과물로서의 객체2, 혹은 의미, 표상, 시니피에의 세계, 관념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게 이제 분석철학을 필두로 하는 철학에서의 언어연구란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과,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언어학에서는, 지난번에도 언어학의 간단한 역사를 소개를 했지만, 언어학에서는 초반에는 소리 중심의 연구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의미론적으로 전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제적인 차이도 있었고, 그 전에 말했던 가치론적인 입장의 배제와 집어넣기, 그런 차이도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분야에서의 이런 차이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분석철학적 입장과 언어학적 입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죠.

## ▲ 현상학적 관점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사조를 얘기를 한다면,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철학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분석철학과 비교했을 때 더더군다나, 언어 자체가 어떤 큰 문제시되는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 뿌리를 보면, 크게 멀지 않아요. 후설이라는 이름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말은 물론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여 왔었는데, 현상학이란 말은 헤겔도 썼고 다 썼잖아요.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후설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후설의 이름하고 결부가 되는데, 후설이라는 사람도 브렌타노라는 사람의 제자죠.

브렌타노까지 올라가면 분석철학하고 결부가 많이 돼요. 수리, 이런 것하고 얘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후설도 초창기에 연구는 논리 연구, 그런 쪽하고 많이, 후설이라는 사람은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죠. 대저작이 논리연구, 한국말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대한 책을 남겼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현상학 분야에서 어떤 커다란 논리, 언어철학의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학제적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현상학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발점에서 인식의 차원,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의 문제이니까.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결국 기존에 있었던 철학 내에서의 인식의 문제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 언어학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예를 든다면 선험적 자아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진, 이것도 역시, 과거에 있었던 주류 철학에서의 큰 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데카르트가, 철학의 주체로 나를 삼았다는 어떤 그런 거, 그게 아주 크게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칸트가 얘기했던, 범주란 이야기 했었잖아요. 범주라는 개념, 여기서도 선험이라는 것이 주가 되죠. 트랜스덴탈(transcendental)이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크게 멀어지지 않아요.

어떤 컨스트럭션(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인식의 뭔가를 구성한다는 그런 것과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선험적 나’가 구성을 하는 주체이지, 대상이 주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뭐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큰 범주에서 칸트랑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거를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향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지향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컨스트럭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떤 내가 시니피앙, 시니피에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와 개념, 관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의 지각세계에서의 똑같은 지각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지각세계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개 크게 보면 비슷한 지각세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지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

죠.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어떤 사물들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지향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방도 너무나 많은 무한대의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 구석에 있는 분필조각을 아마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비로소 방향을 가리키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 내가 관심을 지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지향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꽃이라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김춘수의, <꽃>이죠, <꽃>. 그 시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현상학적인 주지주의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한 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나한테 의미가 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 현상학적인 주지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향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바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현상학에서는, 의식작용과 의식의 행위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노에시스(Noesis), 노에마(Noema)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노에시스라고 하는 것과 노에마라고 하는 것 사이의 관계인데, 노에시스라고 하는 건 의식작용을 얘기해요. 의식하는 행위.

반면 노에마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이 되는, 뭐를 의식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향성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사고가 왜 가능하게 되느냐면 바로 서구 언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분사(分詞)라는 개념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지만, 처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좀 난해할 수 있는, 처음 배울 때 분사개념이 낯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고, 아까 관사개념 이야기했었는데 관사개념 참 낯설었죠. 관사개념 왜 쓰냐 싶고, 자꾸 틀리고 그랬잖아요.

분사도 마찬가지로, 분사를 왜 쓰냐 싶고 자꾸 틀리고. 예를 들어서 ‘피곤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피곤한’이 무슨 의미예요? ‘피곤한 사람’이 무슨 의미죠? ‘저사람 저 피곤한 사람이네’ 그런데 반면 다른 분들은 ‘저사람 피곤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런 무슨 의미에서요?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는, 건드렸다면 계속 말시키고 어우 피곤한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어제 밤새서 피곤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거기서 피곤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피곤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피곤함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능동과 수동을 정확히 구별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문맥상 구별을 하는 거예요.

문맥상,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더라’ 다시 말하면 문맥상 아는 거죠. 상황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걸 문맥으로 알게 놔두지 않고, 문법적으로 분명히 구별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분사에서의 능동을 표시하는 현재분사와, 수동을 표시하는 과거분사사이에서의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시니피앙 시니피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건 능동으로 하는 의미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니피에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미당하는 객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노에시스, 노에마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의식을 하는 주체와 의식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의식이 되는 객체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이미 서양에서는 분사라는 개념을 통해가지고 능동 수동의 개념이 명확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go'라는 동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go'라는 말을 가지고는 'to go'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행위 자체죠. 'going' 하고 'gone'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to go'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기? 간다는 것? 감.

그럼 'going'은 뭘까요. 감을 행하는,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gone'은 뭘예요, 감을 당한? 가진? 뭐라고 얘길 하나요. 한국말로 하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가는 행위 자동사 한국말로 가는 행위를 하는 게 그게 무슨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한국말로 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이 없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물론 역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말에서의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언어는 결국 그대로, 지난번에 홈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어가 없어지면 혼 자체를 뺏긴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구 체제, 사회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서구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번역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방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하지 않고선 한국문화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노에시스, 노에마라고 하는 것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니피앙, 시니피에 발견도 그렇지 않겠어요. 소쉬르라는 사람이 불어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예는 많잖아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자인, 다자인이라는 거. 독어권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식작용을 통해서 의식화 된다는 그런, 대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채움’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현상학에서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시니피에는 빈껍데기라고 했잖아요. 시니피앙도 빈껍데기였고.

다시 말하면 시니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니피앙이 아무것도 아니듯. 그 안에서 채워 넣어서 실제로 만드는 것이 실제 소리고, 실제 관념이란 거죠. 그러니까 채워 넣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변증법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두 축 사이에서의 제 삼의 관념의 세계에 이르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했던,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이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데 아까 분석철학도 그렇고 현상학도 그렇고, 그런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쓸데없는 대답을 만들었던, 그런 좋은 발견을 했지만, 항상 관념 중심에서의 언어분석밖에 하질 않았다는 거. 그런 데에서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가 좀 역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상학적 어떤 그런 인식론에서는 분명 그런 어떤 큰 발견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을 한다는 그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컨스트럭션을 한다는 자체가, 시니피앙, 시니피에, 다시 말하면 시니피앙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틀을 만드는. 그 다음에 그거를 의식작용을 통해서 채워 넣기를 한다는,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관념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순히 객체2로서의 그런 표상이 그냥 표상이 아니라 시니피앙 단계를 통해가지고 채워 넣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관념이 만들어 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현대적 의미에서의 현상학적 인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학적 개념들이 똑같이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 ▲ 언어학, 20세기 인문학의 나침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다 말하자면, 여러 분석철학이라든가 현상학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언어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20세기 큰 사조의 출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학과 직결이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의 탄생 자체가 언어학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쉬르라는 이름하고의 결부가 바로 되는데, 소쉬르 본인이 구조주의란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고,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죠. 단지 시스템이란 말을 했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대립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설명을 했잖아요, 변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서, 실제 있는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물이 아니라 어떤 대립관계의 추상적인 틀, 아까 얘기했던 틀이라는 것,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구조물, 틀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발상을 얻어가지고 소쉬르가 이야기했던 것을 나중에 야콥슨이라든가,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었죠.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망명을 했을 때, 역시 또 미국으로 망명을 왔었죠. 레비-스트로스가, 레비 스트로스와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비 스트로스가 그런 새로운 방법을 안 거죠.

그거를 갖다가 신화에 적용을 시킨 것이 구조주의라고, 신화는 여러 가지가 다 수만 가지, 무한대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화들을 잘 보면 그 안에는 분명 대립관계, 뭐와 뭐 사이에서의 대립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대립관계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신화 내용 자체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분명 시니피에가 존재한다.

물론 제가 아마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구조주의자들이 시니피앙 시니피에란 개념을 완전히 잘못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시니피앙, 시니피에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학적 의미에서의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신화라고 하는 것도, 분명 시니피에가 있다는 거죠.

그 시니피에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실제의 신화들, 실제의 개념들,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화연구.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정신분석학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철학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문화 비평이라든가 다양한 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언어학에서 발견했던 이론이 아주 일반화됐던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구조주의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방법론인데, 바로 이제 그게 언어학이 20세기에 파일럿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언어학이 20세기의 파일럿이다.

20세기의 모든 구조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인문학들을 이끌었던 그 계기는, 그 힘은 어디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 틀, 다시 말하면 대립관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실과 교실이 나뉜다는 이야기는, 교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교실에는 이거 저쪽 교실에는 저거, 이게 아니라 교실과 교실 사이의 벽, 그걸 가지고 교실이 나뉜다는 얘기죠.

벽과 벽, 그거를, 다시 말하면 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제 벽이 나뉘지느냐,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게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구체적인 수많은 내용물들을 둘로 나누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조주의라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을 가지고, 축구팀으로 말한다면, 수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라, 다른 공격수에 비해서 내 위치가 뭐냐 그런 관계로 정해지는 것이지, 실제 내가 어디 서있느냐를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 ▲ 현대 언어학의 방향

그런 것이 구조주의 방법론이었고, 반면에 아까 현상학이라는 것과 분석철학에서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는 것처럼, 구조주의에서 역시 처음에서,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개념을 완전히 이상하게 도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을 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립적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현상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과거의 철학 방법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다시 말하면 어떤 유일한 하나의 방법론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립관계에서 설명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방법론을 여러 분야에 제시를 했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같은 그런 대립관계, 그 다음에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통해서 나오는 삼단계의 어떤 분석 틀, 다시 말하면 변증법적인 축, 그 다음에 또 모든 문제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퀄리티와 퀀티티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축.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언어학의 발견의 어떤 것에 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고,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고, 단순화되고 그런 작업들이 이뤄져 왔었어요.

언어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제대로 재발견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철학의 본질인 목적이 그런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관념 중심의 언어연구가 아니라 양쪽 균형이 잡힌 언어연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언어를 우리가 이제 대하는 방식에서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결론 격으로 해당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매개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마지막결론을 짚어 볼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